



사진 76. 7트렌치 수습 명문기와



사진 77. 9트렌치 수습 명문기와



사진 78. 9트렌치 수습 명문기와



사진 79. 체성 주변 수습 명문기와

## 하동 정안산성 학술 발굴(시굴)조사 조사단 의견서

1. 조사명 : 하동 정안산성 학술 발굴(시굴)조사
2. 조사기간 : 2016. 04. 01 ~ 2016. 05. 20(실 조사일수 15일간)
3. 조사지역 및 면적 :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산 1-1번지, 황천면 학리 산 173-2번지 일대  
조사면적 : 7955㎡
4. 조사기관 : 재단법인 극동문화재연구원

- 금회 발굴(시굴)조사지역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산 1-1번지, 황천면 학리 산 173-2번지 일대로, 조사면적은 7,955㎡이다. 정안산성은 2015년 지표조사를 통해 총 둘레 791.5m, 성내 면적은 약 31,667㎡(9,580평), 남북 최대길이 222.39m, 동서 최대길이 273.11m로 마안봉형의 테뫼식산성으로 파악되었음.
  
- 이번 시굴조사 트렌치 조사결과 채성은 지표상에서 보이는 성 이외에 세 차례 수축·개축된 흔적이 확인되었다. 초축 성벽은 암갈색 사질점토로 기반층 위에 성토 및 정지를 한 후 치석된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성 외곽에서 치석된 석재를 이용하여 쌓은 5단의 초축성벽의 기저부가 확인된다. 2단계의 성은 토성의 형태로 확인된다. 성은 다량의 기와를 포함한 암갈색토를 이용하여 기저부를 조성하고, 현재 성벽 외곽에 적심을 두고 축조하였다. 3단계의 성은 현재 잔존하고 있는 성으로 2단계의 토성에서 흑갈색 점질토를 이용하여 기저부를 조성한 후 30~50cm 크기의 활석으로 4~5단 수직으로 쌓은 후 내부에 흙으로 내탁하여 마무리하였다.
  
- 2015년 지표조사를 통해 성내에 최소 12개소에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번 시굴조사에서는 건물지에 대한 13개의 트렌치 중 7동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건물지 관련 시설은 초석, 석열, 와적, 배수구 등이 있으며, 시기는 수습된 기와를 통해 고려시대에 조성된 건물지로 파악되었다.
  
- 이번 시굴조사에서 성벽과 건물지 트렌치에서 다수의 기와를 확인하였는데, 특히 정안산성의 축성연대 및 성격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는 명문기와를 확인함. 현재 확인된 명문기와는 10개 정도의 개체로, ‘甲午’·‘年甲午四月三’·‘五年甲午四月三’ 등을 모두 좌서(左書)한 것으로 판독됨.
  
- ‘五年甲午四月三’의 경우 북송(北宋) 태종(太宗) 조광의(趙匡義: 재위 976~997)의 네 번째 연호로 5년간(990~994년) 사용된 순화(淳化)와 결합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淳化五年甲午四月三’, 즉 994년(고려 성종 13년) 경에 제작된 기와로, 고려 초기부터 성내에 기와건

물이 조영될 정도로 중요한 산성이었음을 시사함.

- 2015년 지표조사 시 체성과 문지, 집수지, 건물지 등에서 주로 고려(918~1392) 전·중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격자문·어골문 등이 타날된 평기와를 다수 발견하여 정안산성이 정안 선생과 정안가에 의해 축성·운영된 산성으로 추정함.
- 향후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체성 외벽과 내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체성의 수축 및 개축 양상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물지 트랜체 내에 확인된 방형으로 치석된 석재는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석재가공방법에 의한 것으로 정안산성이 통일신라시대에 초축되었음을 시사하는 자료로, 주변으로 전면 확장 발굴조사하여 건물지의 성격과 그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정밀한 발굴조사가 필요함.

2016. 5.



재단법인 극동문화재연구원